

경남 공격수 김형범(가운데)은 가족의 힘으로 재기에 성공했다. 대구와 정규리그 11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매특허인 프리킥으로 시즌 첫 골을 터뜨린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는 모습.
사진제공 | 경남FC

김형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커 피플 | 부활 날갯짓 경남FC 김형범

이적 후 부담감 이긴 대구전 시즌 1호골

“보여준 게 없어서…득남 소식 이제 전해요
교체도 OK…덜 뛰어도 팀 이기는 게 우선”

경남FC 윙 포워드 김형범(29)에게 12일 열린 대구FC와 K리그 클래식(1부 리그) 11라운드(3-1 경남 승)는 여러 모로 뜻 깊었다. 자신은 올 시즌 1호 골을, 경남은 역대 도·시민구단 가운데 최단시간 팀 통산 100승째를 기록했다. 경기 종료 후 공식 인터뷰에 참석한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좋은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다름 아닌 3월4일 득남(민준) 소식이었다. “좀 더 빨리 말하고 싶었는데 그간 보여드린 것도 없고 그래서….” 모처럼 실력 발휘했던 이제야 가족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었다고 했다. 2004년 울산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그는 전북-대전을 거쳐 올 시즌 경남에 둥지를 틀었다.

●내 시즌은 지금부터

동계훈련 기간 김형범의 킥 감각은 절정이었다. 종종 프리킥 골과 어시스트를 하며 기대를 안겼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다. 부담감에 발목 잡혔다. 침묵이 길어졌다. 주변에서는 ‘경남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도 내렸다. 그러나 최진한 감독의 믿음은 변치 않았다. 헌신을 주문하되, 장점(킥)은 최대한 살리자고 했다.

“오기가 생겼죠. 벤치가 절 신뢰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감독님도, 코치님들도 모두 반전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게 대구전이었어요.”

최 감독은 대구전 직전, 김형범과 면담을 했다. “선발로 나설 수 있느냐”는 말에 “상대가 좀 더 지쳤을 때 실력 발휘하고 싶다”고 답했다. 전략이 통했다. 후반 7분 투입된 그는 27분 뒤 날카로운 프리킥골로 승리에 쐐기를 박았다. 통산 99승에서 승수 시계가 멈췄던 경남이 8경기 만에 ‘아홉수’ 탈출에 성공한 순간이었다.

●날 살릴 희생

한 때 김형범도 선발에 연연하던 시절이 있었다. 혹여 대기 명단에 있으면 서운함이 앞섰다. 그 욕심을 버렸다. 부상이 잦은 몸에 대한 배려로 보게 됐다.

“(교체 투입되면) 마음이 아팠죠. 생각을 바꿔보니 덜 뛰어도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팀이 우선이죠.”

계기는 힘겨운 강등 다툼을 했던 작년 대전 시절. 거기서 희생을 배웠다. 고참의 참 역할도 느꼈다.

“전북에서는 제 일만 했다면 대전에선 모든 힘을 모아야 했죠. (최진한) 감독님도 늘 언급하세요. 헌신하자고. 코치님들도 ‘언제든 기죽지 말라. 덜 뛰어도 분위기를 잡으라’고 하셨죠. 문득, ‘내가 어리지 않구나. 좋은 영향을 주는 고참이 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책임감이다. 출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긍정 바이러스를 팀 전체에 퍼뜨릴 수 있는 게 진짜 베테랑이라는 걸 알게 됐다.

●내 삶의 원천을 위해

김형범의 날갯짓 뒤에는 가족들이 있다. 작년 말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올리지 못한 동갑내기 신부(서규린 씨)와 백일도 채 안 된 갓난 아들, 그리고 식당일을 하며 아들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허경순·46)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소원이 일 그만두고, 아들이 뛰는 경기를 보러 전국을 다니는 건데, 제가 2009년부터 3년 가까이 (부상으로) 쉬었으니 꿈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못난 아들이죠. 빨리 소원성취 시켜드리고 싶은데.”

아내 서 씨와는 본래 작년 시즌 후 혼인하려 했지만 ‘좀 더 예쁜 모습으로’ 면사포를 씌워주고 싶은 마음에 올해 말로 미뤘다.

“와이프가 고맙죠. 축구 선수 가족이 얼마나 힘든 건데. 함께 시즌을 보내잖아요. 휴가다운 휴가도 못 즐기고. 보답하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축구협 조직 개편…이용수 미래전략기획단장 선임

1 기획단 4실 체제 결제라인 간소화
선거때 타후보 지지 이교수 전격영입
정몽규회장, 축구계 화합 첫단추 꿰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선택은 이용수(54·사진) 세종대 교수였다.

축구협회는 14일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을 위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8국 1센터 1실에서 1기획단 4실 체제로 새롭게 모습을 갖췄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직을 없애고 전무이사 중심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결재라인을 대폭 줄였고, 젊은 인재를 팀장으로 발탁해 연공서열을 없앴다. 정 회장이 선출된 지 3개월여 만에 조직 개편이 완성됐다.

2002한일월드컵 당시 기술위원장을 역임했던 이 교수의 발탁이 눈에 띈다. 새롭게 신설된 미래전략기획단 단장으로 선임했다. 이 교수는 당초 정 회장의 요청에 수차례 고사의 뜻을 밝혔다. 불과 3일전까지도 확고했다. 그러나 주변에서 ‘축구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정 회장의 끈질긴 노력도 한몫 했다. 이로써 정 회장은 1월 말 협회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 허승표 피플웍스 회장을 도왔던 이 교수를 통해 축구계 화합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 교수는 공동 단장으로 선임된 곽영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업무 분담을 한다. 기획단은 협회 팀장급 이상과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정 회장 직속기구다. 축구산업 시장의 확대, 주말리그 개선방안, 협회 가맹단체들의 자생력 제고, 대의원 선거제도 개선 등 정 회장의 공약 사업을 실천할 핵심부서다. 이 교수는 “그동안 협회는 대표팀 위주의 단기적인 플랜에 집중했다. 이제부터 중장기적으로 길게 바라보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골몰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울산이 정들었던 AFC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와 작별했다. 작년 대회 정상에 등극한 김호곤(가운데) 감독이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亞 챔스리그 우승트로피와 이별이 아쉬운 울산

자식을 결혼시키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울산 현대 프런트들이 이와 비슷한 느낌을 경험했다. 갖은 고생 끝에 품에 안았던 2012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와 이별한 것이다. 울산은 13일 국제 택배를 통해 트로피를 돌려보냈다. 행선지는 AFC 본부가 있는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였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우승 클럽은 결승전 이후 3개월 간 트로피를 갖고 있다가 반납해야 하는데, AFC는 이를 대신해 해당 구단에 진품보다 크기와 무게가 조금 작은 모조 트로피를 전시용으로 보내준다. 이는 월드컵 등 각 대륙 연맹이 주관하는 국제 대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울산은 반납하는데 약간 뜸을 들였다. 이유는 간단했다. 헤어짐이 아쉬워서였다. 2월 모조품이 구단에 도착했지만 예정보다 한 달여간 더 길게 우승 트로피를 클럽하우스에서 보관했다. AFC도 울산에 별다른 재촉을 하지 않았다는 후문.

물론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울산은 의미 있는 마지막을 위해 팬들과 함께 하는 길을 택했다. 주말 수원삼성과 K리그 클래식 11라운드 홈경기에 앞서 울산문수경기장 외곽에 포토 존을 설치, 트로피와 함께 팬들이 사진을 찍고 추억을 공유하도록 했다.

울산 직원은 “잘 키우고 자랑스러웠던 딸을 시집보내는 기분”이라며 “언제 트로피를 되찾을지 모른다. 기약이 없어 더 아쉽다”고 서운함을 전했다.

남장현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트위터@simss23

